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이전 안 봐준다

광주시, 이달부터 본격 단속 흰색 실선만 주차 가능 공휴일·점심시간대도 단속 어기면 과태료 12만원·견인

광주시가 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광주시는 스쿨존 내 하얀실선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의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장기 주차나 통행 방해가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 방침과 달리 동·서·남·광산구 등 4개구는 설 연휴를 고려해 3일부터 단속에 들어갔으며, 북구는 7일부터 단속을 실시기로 했다. 특히 시와 5개구는 스쿨존과 관련해서는 공휴일은 물론 점심시간대(오전 11시~오후 2시)에도 단속을 실시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적은데다 단속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3일 스쿨존 일대의 불법 주정차는 지난달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3일 오후 2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서초등학교, 이 학교 정문 앞 약 140m 도로에는 스쿨존임을 알리는 붉은색 노면 표시와 도로 끝에 주정차 금지 표시를 나타내는 황색실선이 깔려있었지만, 모든 구간에 차량들이 줄을 지어 주차돼 있었다.

학교 정문 앞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가 설치돼있었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차를 세워두고 있었다.

남구 월산동 농성초등학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방학임에도 일부 학생들이 학교 안팎을 오가고 있었지만 차량들은 학교 앞 도로 빈곳을 찾아 주차하기 바빴다.

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는 광주시의

발표가 무색해지는 광경이었다. 시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월 1일부터 본격화 된다고 밝혔다. CCTV와 구청차량 등 단속 장비를 통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 견인을 시행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단속유예 기간도 15분에서 5분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변화가 전혀 체감되지 않았다.

특히 설 연휴이자 공휴일이었던 지난 1일과 2일 단속 권한을 가진 광주시 5개 구는 불법주정차 단

속을 유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 연휴와 코로나 19 등의 상황으로 단속을 유예했다는 게 5개 구청의 설명이다.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를 금지하는 '민식이법'은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과 구청 간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북구 오치동 서산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주변 주택가에 '어린이들의 안전통학 인정하니 주민들의 생존권도 보장하라', '주민생존 위협하는 황색실선 해제하라'는 현수막이 나붙었다.

이 학교 주변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부설주차

장 전면 개방 ▲후문 담장 주변 주차금지선 해제 ▲거주민 차량의 단속 제외 등을 북구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재학생들의 안전상 문제 등을 이유로 거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승권 광주시교통문화연수원 부장은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금지는 어린이의 교통 안전 강화가 목적인 만큼,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청의 한 관계자도 "아직 대다수 운전자들이 단속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까운 시일내에 제도가 안착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민석·정병호 기자 mskim@kwangju.co.kr



3일 오후 3시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농성초등학교 정문 일대에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은행 사거리 등 2곳 10일부터 좌회전 안돼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신호 개선 교통방송 안내 등 시민 홍보 주력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관련해서 오는 10일부터 한국은행 사거리(한국은행→소각장 방향)와 주월교차로(농성역→백운초교 방향)에서 좌회전이 금지된다"고 3일 밝혔다.

좌회전이 금지된 상무중앙로 한국은행 사거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SC제일은행 사거리에서 우회도로 하고, 주월교차로는 백운교차로에서 좌회전 및 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좌회전 금지로 시간당 직진 차량은 한국은행 사거리 718대, 주월교차로 1766대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운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좌회전 금지 및 우회노선을 게시하고, 광주경찰청과 함께 교통방송 안내, 도로전광표지판(VMS)에 송출하는 등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정대경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공사 중 잦은 교통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저녹스보일러 교체로 미세먼지 잡는다

광주 서구, 10만~60만원 지원

광주 서구가 가정에서 사용 중인 노후 보일러를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높고, 열효율이 우수한 저녹스(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가구당 10~60만원을 지원한다.


저녹스 보일러는 에너지소비효율이 92% 이상이면서,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가 20ppm 이하로써 환경부로부터 친환경마크를 인증받은 보일러가 해당되며, 작년 12월 기준 5개 회사에서 제작한 468종의 제품이 인증되어 있다.

서구는 총사업비 6억 3300만원으로 일반가정에는 대당 10만원, 저소득층에는 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저소득층의 범위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까지였으나 올해부터는 장애인·수급자·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까지로 확대됐다.

접수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등기우편으로만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기후환경과(062-360-7965)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열독률 호남 1위

광주시교육청, 첫 여성 교육국장 배출

오경미 대촌중 교장 교육국장에 교육공무원 2753명 정기인사

광주시교육청이 3월 1일자로 교육공무원 275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3일 단행했다.

이번 인사 대상은 유·초·중·특수학교 교(원)장·교(원)감·교육전문직원 188명(유 4명, 초 81명, 중 103명), 교사 2565명(유 66명, 초 1329명, 중 1170명)이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오경미 대촌중 교장의 교육국장 발령이다. 오 신임 교육국장은 1986년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한 이후 시 교육청 역사상 첫 여성 교육국장이다. 오 신임 국장은 1989년 상업 교사로 인천여상에서 교직 생활을 시

작한 후 승정여상, 광주실고에서 근무했다. 1999년 전문직으로 전환해 학생교육원 교육연구사, 동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진남중학교 교감, 시 교육청 감사관 장학관,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등을 역임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는 정낙주 문흥초 교장, 광주학생교육원장에 김형태 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에 안규환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에 정종재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을 각각 인사 발령했다.

한편 이승우 현 교육국장은 정년을 1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해 35년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 교육현장 안전관리 대폭 강화

중대재해관리팀 신설

전남도교육청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재해예방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담당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교육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전남도교육청은 3일 비대면 정책브리핑을 갖고 중대재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분청 안전복지과에 중대재해관리팀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모든 학교의 위험성평가를 지원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확대하며 학교 구성원의 안전보건교육 고취를 위해 내실 있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학교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시설 95개동의 내진보강, 196개교 교육시설 안전인증 취득 및 197개교 석면 교체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을 위해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해 기업을 선정하고 현장실습생 안전용품 지원과 실습 담당자 사전 교육을 통해 학생안전 및 노동인권이 담보된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학교는 가장 평등하고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촘촘한 교육안전망 구축을 역점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할 것이다"며 "기존 코로나19 방역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이제는 "수목장" 입니다.

나를 위해, 후대를 위해, 환경을 위해
수목장으로~

- 1 매장,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저렴
- 2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으로 사용
- 3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

**수목장
장점**



개인묘지 수목장 전환

가족묘, 문중묘 → 수목장 전환

저출산 고령화의 그늘
후손들에게 묘지 관리를 기대하거나 의지할 수 있을까요?

문의: 062-464-9190